

一九六三年度 碩士學位請求論文 中考古美術에 關係된 論文과 發表者는 다음과 같다.

· 梨 大 李朝粉青沙器의 研究 姜 敬淑

· 延世大 韓國石塔樣式과 그 變遷에 關한 系統的 研究 이 경 희

韓國住宅의 變遷과 發達에 關한 研究 주 남 철

※ 延世大에서는 十二月十二日 下午二時부터 理工大學建工館에서 論文發表會가 있었다.

國寶 延嘉七年銘 金銅如來立像

— 第五卷 第一號 通卷四十二號 —

在銘 三國期 金銅像으로서 臺座와 光背를 具存하는 如來立像 一軀가 새로 出土되어 마침내 國寶로서 指定되었다. 아마도 古新羅領域에서의 初有의 發見이며 解放前後를 통하여 가장 貴重한 佛像의 確保라고 할만하다.



하다.

出土年月日..一九六三年 七月 十六日

六日

出土場所..慶南宜寧郡 大義面 下

村里 山の四〇

發見者..姜甲順

(女 39歲 同里

四〇四番地)

出土狀況..道路에

서 멀지 않은 山麓의 돌무더기 傾斜地 깊이 約一尺되는 地下에서 발굴採取作業中 發見되었다. 佛像둘레에는 約一尺三寸 四方으로 돌을 쌓고 다시 돌로 덮여 있었다는 伴出遺物은 없었다. 現場은 寺址가 아니다.

收拾經緯..發見者의 申告와 支署의 報告에 따라 宜寧署長과 郡教育課長의 現地出張이 있는 후 慶南道廳에 告報되었고 現品도 道文化課로 移管되었으며 十月二十一日附로 文教部에 報告되었다. 現品調査는 十一月 中旬 慶南高校長 朴敬源氏와 東亞大教授 丁仲煥氏에 의하여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同月二十三日 朴校長의 通知에 의하여 黃壽永 申榮勳 兩氏의 調査가 있었다. 이 調査內容은 化文財委員長에게 報告되었다. 十一月 下旬 朴敬源氏에 의하여 宜寧現場의 踏查가 있는 다음 同三十日 朴, 黃 兩氏는 다시 경주 石窟庵에서 이에 대하여 檢討한 바 있었다. 그後 十二月四日 文教部 指示에 따라 現品이 上京하였고 翌五日 開催된 文化財 第一分委 第十七次會議(本號는 參照)에서 現品鑑定과 指定審議가 있어 全員一致로 國寶 一一九號로 議決되었으며 六世紀의 高句麗佛로 推定되었다. 그後 이 佛像은 國立博物館에 移管되어 年末까지 特別展示되었다. (이에 對하여서는 十二月三日附 韓國日報를 비롯하여 主要新聞에 크게 報道되었다.)

銘文..(四行 四十七字 陰刻 字徑 三分)

延嘉..七年歲在己未高麗國樂良

東寺..主敬第子僧演師佳世人共

造賢..劫千佛流布第廿九回現歲

佛比..丘珐類師供養折斷線

크기..總高 五寸六分五厘 像高 三寸一分 肩幅 八分 光背高 四寸三分 幅 三寸六分 臺座高 一寸二分 下徑 一寸九分 (黃壽永記)